https://doi.org/10.18856/jpn.2026.32.3.011

레비아탄적 신체와 영구 내전의 불안
- 연상호 호러 세계관에 대해

송효정*

1. 서론 _이름 없는 불안
2. 위기, 지속되는 내전
3. 정치와 신학의 우의로서의 레비아탄
4. 묵시록적 포퓰리즘과 몹신(mob scene)
5. '낯설게 낯선 자'에게 유령들림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상호가 연출하거나 또는 극본에 참여한 2020년대 포스트-팬데믹 시기 시리즈 작품군, 특히 〈지옥〉 시즌2(2024)와 〈기생수: 더 그레이〉(2024)를 중심으로 〈방법: 재차의〉(2021), 〈괴이〉(2022)와 영화 〈반도〉(2020)를 함께 검토하여 이른바 '연상호 세계관'이 동시대 대중의 무정형한 불안을 어떻게 예견적으로 형상화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르조 아감벤의 '행성적 내전(Stasis)' 개념과 홉스적 레비아탄의 우의에 대한 현대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연상호 작품에 등장하는 국가 기능이 공동화·비가시화된 자리에서 신념 집단으로 응집한 군중이 서로를 살상하는 몹신은, 개개인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인공 신체인 '레비아탄적 신체'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웬디 브라운의 '묵시록적 포퓰

*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www.kci.go.kr

리즘'과 티머시 모턴의 '어두운 생태학' 개념을 경유하여 이 신체들이 기후·생태 위기라는 비인간적 무의식과 얽혀드는 방식을 함께 살피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연상호의 호러·오컬트 서사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계급 서사를 넘어, 혁명과 진보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이 소실되고 보편성이 소거된 시대의 영구적 내전 상태를 예견적으로 증언하는 징후적 텍스트임을 조망하였다.

(주제어: 연상호 호러 세계관, 묵시록적 포퓰리즘, 몹신, 레비아탄적 신체, 행성적 내전, 어두운 생태학)

1. 서론 _ 이름 없는 불안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는 파시즘에 잠식되어가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독일 사회의 군중 심리와 정치적인 무의식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프리츠 랑의 〈M〉(1931)을 언급한다. 영화의 흐름은 기이하다. 아동연쇄살인범을 찾기 위해 법질서의 수호자와 무법자가 아이러니하게 협력한다. 영화 후반부, 폐공장에 군중들의 비합법적인 지하 재판소가 열린다. 다중의 살인, 사기, 폭력범인 갱스터들이 재판관이 되고 분노한 군중이 입회자가 되어 살인범을 분노로 단죄하려 한다. 선과 악, 적과 아군이 모호해진 이 부조리한 영화는 범죄의 응징과 다른 측면에서 대도시를 잠식하고 있는 군중들의 불안, 혐오 혼돈을 기괴하게 재현한다.[1)]

혐오와 혼돈에 빠진 군중의 모습은 연상호의 작품에서도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극우 청년 집단인 화살촉의 공개처형(〈지옥〉 시즌1)이나 분노와

1)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칼리가리에서 히틀러로』, 장희권 옮김, 새물결, 2022, 380-388쪽.

www.kci.go.kr

열정이 응집된 군중집회를 통한 불꽃의 정화 의식(〈지옥〉 시즌2) 장면에서는 폭력과 죽음이 출렁인다. 국가는 광신도에게 권력을 양도한 듯 보이고 군중은 우연처럼 도래한 재난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합리적 법칙이나 납득할 수 있는 인과율은 없으며 선하고 성실한 자가 보상받는 윤리적 응보의 세계는 이곳과 무관하다. 연상호의 세계에서 초자연은 부조리로 잠식된 카오스적 사회 체제를 리셋한다.[2)]

판타지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재현하고 구성한다. 그 하위 장르인 호러는 인간의 무의식적 불안과 관여된다. 오컬트는 숨겨지고 은폐된 공포의 근원을 파고든다.[3)] 연상호의 2020년대 주요 작품들은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호러에 해당하며 동시에 초자연적 질서가 현실세계에 강림한다는 점에서 오컬트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세계의 횡포를 보여주는 지점에서 머물지 않고 보다 더 어둡고 복잡한 방식으로 사회 저변에 깔린 어두운 무의식을 응시한다. 우리는 연상호가 창작(에 관여)한 동시대 작품들을 '위기'에 대한 전조 내지 예후로 살필 수 있을지 모른다.[4)] 그의 작품들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는 있지만 아직 언어화·개념화 하지 못한 무정형의 불안과 무의식적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

2) 〈지옥〉 시즌1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이 시연된 후 세계의 논리가 리셋되자 군중들이 맹신과 증오에 잠식된 채 원(原)-파시즘적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송효정, 「프롤레타리아 그로테스크- 동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인민 대중 형상」, 『우리말글』 제103호, 우리말글학회, 2024, 562-566쪽.

3) 오컬트(occult)는 '감춰진', '숨겨진'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오쿨투스(occul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4) 〈부산행〉(2016), 〈서울역〉(2016)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감염의 공포,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의 확산과 심화를 선행해 보여주었으며, 〈지옥〉시리즈(2021~2024)는 현실정치에 출몰한 광신 집단과 정교(政敎) 일치로 보일 법한 비합리적 통치술, 극우세력의 사법·입법 난동을 선취해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위기'의 시대에 영화는 대중들의 무의식적 불안을 반영하는 '예견적' 기능을 갖기도 한다.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의 심리학적 역사'라는 부제가 붙은 저서 『칼리가리에서 히틀러까지』에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1920, 로베르트 비네), 〈마부제 박사〉 연작(1922~1933, 프리츠 랑) 및 〈M〉(1931, 프리츠 랑)과 같은 바이마르 시대의 영화가 파시즘적 독재자의 출현과 독일 군중의 카오스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5]

반대로 상황을 사후적으로 담론화 하는 것도 대중 장르영화의 속성 중 하나다. 조지 로메로는 좀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1968)에서 외계에서 도래한 물질에 전염된 좀비를 통해 냉전기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트라우마를 사후적으로 공포화하고 있으며, 〈시체들의 새벽〉(1978)에서 자신의 신체마저도 소비해버리는 소비주의적 주체에 대한 비유를 선보이기도 했다.[6] 2010년대 이후 한국 영화와 웹툰에서 좀비의 등장을 억압받는 질서에 대한 고발이나 문화세대적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 송아름의 관점도 이와 상통한다.[7]

앞서 연상호가 2010년대 중반부터 진행한 좀비 트릴로지 〈부산행〉(2016)-〈서울역〉(2016)-〈반도〉(2020)의 세계는 금융자본 본위의 신자유주의적 신체들을 보여주는 시리즈였다. 〈서울역〉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투자 열풍이, 〈부산행〉에서는 주가 조작과 탐욕적 기업 경영이, 〈반도〉

5) 크라카우어는 특정 시대 독일 민족의 불안 및 희망과 같은 심리적 패턴을 분석하려 하였다. 그는 영화가 타 매체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심리적 성향, 즉 의식체계 밑에 깔린 집단 심리의 심층을 반영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한 영화는 카메라의 다양한 움직임과 편집, 그리고 여러 특수기법 덕분에 눈에 보이는 세계 전체를 -마치 전자파처럼- 스캔할 수 있게 되었다.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위의 책, 11-26쪽.

6) Rick Worland, *The Horror Film: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2007, 94-95쪽, 273-274쪽.

7)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30호, 2013, 185-223쪽.

www.kci.go.kr

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 서사적 동력이 됐다. 이들은 자본이 인간을 무감각하고 폭력적인 좀비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좀비 3부작에서의 연상호의 세계관은 극심한 계층갈등,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며 프레카리아트(precariat)[8] 내부의 사투를 서사화하는 〈오징어게임〉과 같은 세계선 상에 놓여 있는 듯 보였다.

연상호에 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부산행〉 3부작에서의 좀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주도적 경향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투영한 새로운 주체성으로 좀비를 해석하는 데 맞춰져 있다. 복도훈은 자본주의적 삶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채권-채무의 착종된 관계로 만들어진 인간의 예속화 속에서 인간-좀비가 채권-채무자로 상호 전치되고 있다고 보며 좀비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빚진 인간(Homo Debitor)'으로 규정한다.[9]

김일림과 박미영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체성을 비물질 노동에 종사하는 프레카리아트적 비체(abject)로 사유하며 이러한 주체들을 '비주체적 저항장치'이자 '비체적 포스트휴먼'으로 간주한다.[10] 한편 젠더정치학의 시각에서 한영현은 좀비가 자본주의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여성을 비-장소로 내몰아 절멸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식 속에 여성의 몸이 생산의 인큐베이터로서 폭력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흥미

8) 프레타카리아트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다. 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 등을 통칭하는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를 뜻하는 말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신노동자 계층을 말한다.

9) 복도훈, 「빚짐의 도착적인 유대, 또는 속죄의 판타지 (없)는 좀비민국의 아포칼립스 -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16)과 〈서울역〉(2016)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8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13쪽.

10) 김일림, 「'아름다운 청년'은 어떻게 '좀비'가 되었나? -한국의 대중문화로 보는 근대적 주체의 행방-」, 『인문콘텐츠』 제46호, 2017, 284, 297쪽; 박미영, 「디지털 시대의 좀비와 비체적 포스트휴머니즘」, 『현대영화연구』 제44호, 2021, 79-95쪽.

www.kci.go.kr

로운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11] 이렇듯 연상호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서울역〉, 〈부산행〉, 〈반도〉의 좀비 트릴로지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으로 독해하고 있으며 〈지옥〉 시즌1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아직 본격적 학술연구의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은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작품군인 〈지옥〉시즌2(2024)와 〈기생수: 더 그레이〉(2024)를 다루되 오컬트 소재를 차용한 근작 호러 시리즈물로서 연상호가 극본에 참여한 〈방법:재차의〉(2021, 김용환)와 〈괴이〉(2022, 장건재)를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2] 이미지의 연관성을 고려해 영화 작품 중 〈반도〉(2020)도 일부 검토한다.

〈지옥〉 시리즈 이후 연상호 세계관은 자본의 횡포, 계층 격차와 노동 불안정성 등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불안의 지평과는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시기 작품들은 위기를 둘러싼 초자연적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가 기능이 재현의 바깥에 놓이고, 국지적으로 폐쇄된 지방에서 내전 같은 분쟁과 혈투가 지속된다. 〈지옥〉에서는 공동체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으며, 〈방법〉, 〈괴이〉 등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오컬트 설정을 차용해 사회에 만연된 불신과 혐오의 정동을 드러내고 있다.[13] 〈기생수: 더 그레이〉는 바디 스내처 장르를 차용해 정체

11) 한영현, 「절멸의 공포와 탄생의 이중주: 재난 영화 속 여성 재현의 사회 문화적 함의」, 『여성문화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372쪽.

12) 이 시기 연상호는 〈정이〉(2023), 〈계시록〉(2025), 〈얼굴〉(2025) 등의 영화를 제작했다. 이들은 각각 SF, 심리 스릴러, 미스터리 드라마 장르에 해당되는 데다, 경우에 따라 팬데믹 이전부터 웹툰이나 소설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기획되었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호러적 세계관에 관련된 본 연구에서 제외된다.

13) 〈방법〉에서는 조선 전기 수필집 『용재총화(慵齋叢話)』의 '재차의(在此矣)'를, 〈괴이〉에서는 조선 중기 야담집인 『어우야담(於于野談)』의 '귀불(鬼佛)'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 '재차의'란 '여기에 있다'는 의미의 말로, 주술적으로 조종을 받아 다시 움직이는 시체를 지칭한다. '귀불'은 설화의 맥락 상 악귀가 든 불상을 의미한다.

www.kci.go.kr

불명의 기생생물체를 통한 인류의 분열과 불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상호는 애니메이터, 영화감독, 콘텐츠 총괄 기획자, 작가,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장르의 다국적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본고는 연상호 연출작을 포함 그가 극본을 담당한 작품까지를 작가적 세계관이 깊게 관여된 작품의 연장으로 보고 이를 '연상호 세계관'이라 명할 것이다[14].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 시리즈 이후 그의 작품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다국적 작품들로 포진되어 있다.[15] 연상호는 좀비, 코스믹 호러, 바디 스내쳐, 오컬트, 한국적 샤머니즘, SF 등 하위 장르를 망라하며 다작의 판타지 생산자로서 일견 자기복제적으로 보일 정도의 다작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엔 '연상호적 터치'라 할 만한 고유의 우울하고 기괴한 인장이 있다. 연상호 작품이 즉물적 불쾌감을 선보이는 동시에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부정적 정념을 혐오스럽고 그로테스크하게 재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본 연구는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반영한 연상호 세계관의 작품들이 아직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언어화하지 못한 어떤 불안에 대한 예견의 작품이라는 판단하에 전개된다.

---

14) 통상적으로 '연니버스'로 알려진 연상호 세계관은 영화 〈부산행〉을 중심으로 연작물인 영화와 웹툰들을 종합한 '좀비물'에 제한되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좀비물에 국한되지 않는 연상호(단독 및 공동 각본) 영화 및 시리즈를 '연상호 세계관'으로 포괄한다.

15) 연상호는 다국적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수의 OTT에서 작품을 연출해 왔다. 국제적인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연상호가 총괄 프로듀싱과 각본을 맡은 일본 시리즈물 〈가스인간〉이 2026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으며, 첫 번째 영화 영어로 〈35번가(35th Street)〉라는 호러 액션물을 선보일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최영주, 〈연상호 감독, 디카프리오와 손잡고 첫 미 영화 '35번가' 제작〉, 『노컷뉴스』, 2024.06.07., https://www.nocutnews.co.kr/news/6156954. (접속일: 2026.08.30.)

www.kci.go.kr

2. 위기, 지속되는 내전

유럽어권에서 '위기(crisis)'는 환자의 예후가 불확실해서 의사가 치료 방향과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로 오래 사용되어 왔다. 위기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무지'와 '불확실성'의 느낌을, 다음으로는 의사의 개입에의 욕구 즉 적절한 조치들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16]

카를로 보르도니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티데스의 용례를 따라 '위기(κρίσις)'는 판단, 재판 결과, 전환점, 선택, 결정 등의 의미를 갖는 한편 플라톤의 용례를 따라 논쟁 혹은 언쟁의 의미를 지닌다고 정리한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는 판단 기준, 판별 능력을 뜻하는 '크라이테리언(criterion)', 판단에 적합한, 판단의 기술과 관련 있는 등의 '크리티컬(critical)' 등이 있다. 보르도니는 '위기' 개념이 특정 국면(conjuncture)나 공황(depression)보다 오늘날 더 빈번히 쓰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의 시기와 달리 오늘날의 '위기'들은 지구의 많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호전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위기에 해법이 제시만 될 뿐 정작 해결은 끊

16) 지그문트 바우만·카를로 보르도니, 『위기의 국가』, 안규남 옮김, 도서출판 동녘, 2014, 27쪽. 한편 근대의 개념사에 대해 천착한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개념어 사전에 의하면 '위기(Krise)'는 엄격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옳음 아니면 그름, 구원 아니면 법, 삶 또는 죽음 등에 대해 말이다.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주로 의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위기' 개념은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정치학, 심리학, 경제학, 역사학에 이르렀고 18세기 말경에는 혁명적인 사건들에 적용된 최후의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신학과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었다. 이후 역사학에서 위기는 새로운 시대의 경험에 대한 표현이 되기도 하며 더 나은 혹은 더 악화된 상태로의 과도기 내지 전환기를 가리키기도 했다.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11 - 위기』, 원석영 옮김, 푸른역사, 2019, 12,13쪽.

www.kci.go.kr

임없이 나중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17]

>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중략) 또 다른 위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위기의 다른 양태로 보입니다. 마치 스스로를 자양분으로 삼아 변태와 재생을 거듭하는 거대한 기형적 괴물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삼키고 바꿔버립니다. 그런 참사를 예외가 아니라 삶의 법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위기는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할 뜻밖의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상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18]

그렇다면 지금은 대체 어떤 위기의 세계인가.[19] 21세기 인류는 테러리즘과 팬데믹의 시대를 경유해왔으며, 현재는 기술 패권과 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신냉전 하에, 발생했으나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쟁[20]의 전 지구적 발발에 우려하고 있다.

합리성의 퇴행과 극단주의의 저변 확대, 입법 및 사법기관에 대한 습격,

---

17) 지그문트 바우만·카를로 보르도니, 위의 책, 15-25쪽.

18) 위의 책, 25쪽.

19) 주디스 버틀러는 지금의 시대가 팬데믹 이후 인간의 취약성이 극도로 드러난 비극적 세계라고 판단한다. 주디스 버틀러,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김응산 옮김, 창비, 2023 참고.

20)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대를 해외 무력 충돌에 투입할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나 공식 승인 없이 군대를 적대 행위에 투입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종종 그들이 수행하는 군사 작전을 '분쟁''이라는 수사로 대체하곤 한다. 근래에는 국가 대 국가가 수행하는 전면전보다는 내전, 테러, 자원갈등 등 국지적 충돌에 내부 집단이나 무장단체가 개입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전쟁(war)보다 분쟁(conflict)에 가까워 보인다.

www.kci.go.kr

계엄과 지도자 암살 등 정치적 폭력과 테러리즘, 비합리주의와 반지성주의의 확산 등 불안의 요소가 도처에 산포해 있다. 자본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전지구적 경영 합리성을 관철했던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국경과 해협을 폐쇄하는 변덕스런 보호무역주의 통치성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가 질문으로 우회했듯이, 우리는 아직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민의 자기 통치로서의 '민주주의'의 권위는 심각하게 의심받거나 묵살되고 있고 국가의 책임은 회피되고 있다.[21] 웬디 브라운은 신자유주의가 개인과 정부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몰아내고 있는 와중에 국가가 해체되고 주체가 재정립되고 있다고 본다.[22] 근대적 주권국가 기획인 포스트-베스트팔렌 국가모델이 해체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나 에티엔 발리바르도 같은 입장이다. 책임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이상한 지배형태인 '국가 없는 국가(étatisme sans état)' 개념도 이런 맥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23]

이러한 관점에서 조르조 아감벤이 이 시대를 '행성적 내전(global stasis)'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아감벤에게 내전이란

21) 『민주주의 살해하기』,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위기의 국가』 등 저서의 제목은 이러한 불안을 반영한다. 『민주주의 살해하기』로 번역된 웬디 브라운 저서의 원제는 *Undoing the Demos*로 의역하자면, '데모스(인민) 해체하기'의 의미다. 8인의 사상가의 공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의 원제는 *Democratie, dnas quel etat?*로 '민주주의, 어떤 상태에?' 정도로 의역 가능하다. 민주주의에 대해 죽음·살해 등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수사를 부연한 번역서들은 이들이 출간된 2010년대 한국정치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웬디 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 배충효·방진이 옮김, 내인생의책, 2017; 아감벤 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홍철기 외 옮김, 난장, 2010 참조.

22) 웬디 브라운, 위의 책, 31쪽.

23)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엘 월러스틴, 『인종, 국민, 계급』, 김상운 옮김, 두번째테제, 2022; 조르조 아감벤, 『내전』,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7; 지그문트 바우만·카를로 보르도니, 『위기의 국가』, 안규남 옮김, 도서출판 동녘, 2014 참조.

www.kci.go.kr

국가 단위의 전쟁과 치안의 경계가 무너진 현재 정치의 작동방식을 의미한다.[24] 그는 고대 그리스의 내전인 '스타시스(Stasis)' 개념을 통해 내전을 분석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내전은 가정의 영역인 오이코스(Oikos, 사적 영역)와 정치적 영역인 폴리스(Polis, 공적 영역) 사이를 매개하는 정치적 문턱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현대 정치에 들어서자 권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보다 '행성적 내전'이 지배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25]

이 시대에 벌어지는 분쟁과 군사정책은 국제법상 국제전보다 '내전'에 가까워 보인다. 가치를 위한 투쟁이나 명분 있는 전쟁은 사라져 간다. 누구와 싸우는지 어느 편이 선한 의도를 지녔는지 가치판단은 점차 복잡해진다. 이 내전은 지구라는 행성을 무대로 벌어지는 내부적 갈등이며 행성 지구의 한계를 넘어선 생산과 소비가 원인이 되어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래 동시대 미국 작가주의 감독의 〈시빌 워: 분열의 시대〉(2024, 알렉스 가렌드), 〈원 배틀 애프터 언아더〉(2025, 폴 토마스 앤더슨) 등이 냉소와 비관으로 적과 아군이 모호한 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문제는 이 내전이 한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지전의 방식으로 지구 행성 도처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시대 위기에 대해 좌파 지식인은 나름의 진단과 해석을 내놓았다. 현 사회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으로 낸시 프레이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정의인 '분배'를, 악셀 호네트는 문화적 가치

24) 박문정, 「아감벤의 유럽: '행성적 내전'과 '거주(abitare)'의 가능성」, 『EU연구』 제78호, EU연구소, 2026, 204쪽.

25)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27-53쪽.; 조르조 아감벤, 『저항할 권리』, 박문정 옮김, 효형출판, 2022, 113-116쪽.

www.kci.go.kr

차원에서 일어나는 지위적 차원의 정의인 '인정'을 제시한다.[26] 나는 여기서 어떤 의견이 타당한가라는 논쟁의 귀결보다 논쟁의 촉발 지점에 대해 동시대인이 진지하게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가치 체계의 착종 속에서 실업자, 좌절한 사람들, 자존감이 훼손당한 자들이 분배의 정치와 정체성 정치 속에서 소외되고 이들의 불만 가득한 욕구는 지성의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들, 국면들에서 융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층 더 섬세한 것은 지성의 위기다. 지성의 위기는 몫 없는 자[27]들의 솟구침이라 할 만한 전지구적 내전의 양상 속에서 드러난다. 반지성주의와 비합리주의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는데, 이는 웬디 브라운이 '묵시록적 포퓰리즘(Apocalyptic populism)'이라 설명한 사태들이 행성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28] 웬디 브라운에 의하면, 묵시록적 포퓰리즘이란 미래에 대한 고려를 결여한 채 상황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며, 묵시록적 포퓰리스트는 그것이 자신들은 종말과 절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 하는 자들이다. 연상호의 영화 시리즈는 때로 그러한 불안과 균열을 예후적으로 재현한다.

---

26)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분배냐 인정이냐』, 김원식·문성훈 옮김, 사월의 책, 2014.; 캐빈 올슨 엮음, 낸시 프레이저 외 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문현아 외 옮김, 그린비, 2016, 24-68쪽.

27) 랑시에르적 개념으로, 권력의 공적 분배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크 랑시에르, 『불화』, 도서출판 길, 진태원 옮김, 237-250쪽 참조.

28) Wendy Brown, 'Apocalyptic Populism', *Eurozine* 30. Aug. 2017., https://www.eurozine.com/apocalyptic-populism/. (접속일: 2026.8.30.)

www.kci.go.kr

3. 정치와 신학의 우의로서의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근대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시민이 권리를 양도한 국가적 법인격을 의미하는 동시에 종교적 맥락에서는 묵시록적 괴물을 의미한다. 성서에서 레비아탄은 구약의 욥기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악마적으로 해석되어 적그리스도와 도상학적으로 연관된다. 홉스는『리바이어던』에서 레비아탄을 막강한 힘을 지닌 통치체제, 즉 혼돈과 무질서를 복속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체로 상정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을 예언과 종말론으로 환원하여 지상의 시간이 종말에 이를 때 레비아탄의 머리라는 허구는 지워지고 인민이 자신의 신체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점을 언급한다.[29]

정치체(레비아탄)는 광학적 허구 속에서만 보이는 것으로서, 무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시적이지 않다. 정치체(레비아탄)은 최후의 종말까지 내전의 가능성과 공존할 수 있을 뿐이다. 홉스의 고전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서 아감벤은 『리바이어던』 표지의 우의상징(emblem)을 도상학적으로 분석하며 내전의 본질에 다가간다. 홉스에게 자연 상태란 내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자연 상태란 내전을 과거로, 신화적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국가적 법인격은 무리가 자연 상태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통해 만든 것으로[30] 국가는 내전을 포함하는 구조인 것이다.

홉스는 영국 내전(1642~1651)의 참혹한 폭력과 혼란을 목도하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절대적 군주제를 옹호한『리바이어던』을 저술했다. 17세기 유럽에는 종교적 내전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었다. 철학

29) 조르조 아감벤(2017), 위의 책, 99쪽.

30) 이 구조는 '인민-왕 → 해체된 무리 → 내전 →통일되지 않은 무리 → 인민-왕 …'의 방식으로 원환을 이루며 순환한다.

www.kci.go.kr

자 홉스에게 국가 이성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먼 진보가 아니라 가까운) 내전의 종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홉스는 내전이 발발하게 된 공통적 기반은 이성에 반하여 행동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마저 인식 못하는 무지에 인간들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무지란 '욕망과 두려움'을 말한다[31]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19세기에 혁명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위기Krise'의 개념이 적절한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세계의 종말에 대한 기대나 회의적인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32] 21세기의 아감벤도 전지구적인 내전의 시대를 혁명이 사라진 시대로 파악한다. 내전은 혁명의 종국적 실패에 대한 멜랑콜릭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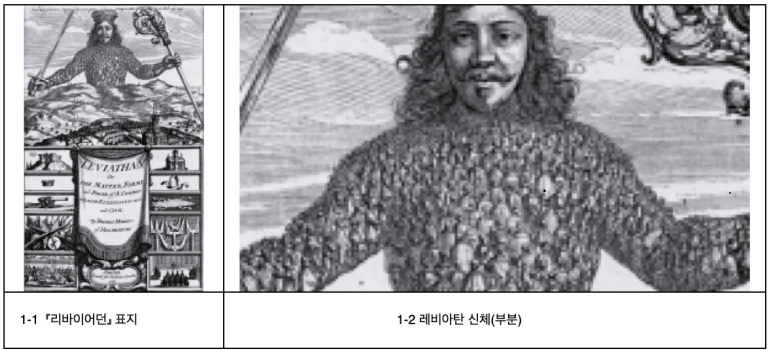
한나 아렌트는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을 지구 전체가 관련된 일종의 내전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동안 내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던 것이 1960년대까지 혁명 개념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 그렇다면 역으로 혁명의 기대감이 만료된 시점에 내전의 상상력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감벤은 '내전'을 서구 정치화의 근본적 문턱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시민의 탈정치화와 비정치적 세력의 동원을 가능하게 한 장치라고 진단한다.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도래한 신냉전 속에서 혁명의 기운은 희박해지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행성적 내전들이 위기의 징후를 드리우고 있다.

홉스의 초판본에서 레비아탄은 수많은 신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적 신체로 오른손에는 칼(군대)을 왼손에는 주교의 지팡이(교회)를 들고 있

31) 김태연, 「'정치신학'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신학" 재고」, 『신학사상』 제207호, 2024, 256쪽에서 재인용
32) 라인하르트 코젤렉, 위의 책, 54쪽.
33)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81-86쪽.

www.kci.go.kr

다. 레비아탄의 신체는 그 자신을 이루는 개개인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인공 인간(homo artificialis)이다. 다음의 장에서는 이러한 인공 인간 레비아탄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하여 연상호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작품들을 살펴본다. 맹신, 확증편향, 불관용의 심화 속에서 융기되는 군중들의 무의식을 연상호의 작품들이 선취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1 『리바이어던』 표지 | 1-2 레비아탄 신체(부분)

〈표1〉 리바이어던 표지 도상

4. 묵시록적 포퓰리즘과 몹신(mob scene)

연상호의 장르물에서 초자연은 묵시론적 포퓰리즘을 촉발시키는 방아쇠로 작용하는 시작의 효과다. 고지를 받으면 너머의 세계에서 사자들이 나타나 파괴와 절멸이 초래된다(〈지옥〉). 괴불이 나타나자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지옥이 펼쳐진다(〈괴이〉). 신체강탈자들이 불현듯 도래하자 불완전하고 취약한 공존이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려는 시체들과 맞선다(〈기생수: 더 그레이〉).

www.kci.go.kr

〈지옥〉 시즌2는 앞선 〈지옥〉 시즌1과 이어지면서도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연상호 자신도 시즌 1을 충분히 완결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옥〉 시즌 2를 만든 것은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확장하는 게 목표였다며, 이 작품이 〈부산행〉 이후 처음으로 대중성이나 흥행의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만든 작품이라 하였다.[34] 〈지옥〉 시리즈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초자연적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회의 전반적 변화 속 인간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방식이다. 이 작품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관과 주체의 소외,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던 기존의 좀비 세계관 작품의 방식보다 훨씬 어둡고 복잡한 세계를 선보인다.

〈지옥〉 시즌2는 앞선 시즌1에서 8년 경과된 시간을 다룬다. 배영재와 손소현의 아기가 시연에서 살아나자[35], 화살촉 집단은 이를 신의 개입과 용서로 해석하며 인터넷 방송과 대중 집회를 통해 세력을 키워간다. 고지를 받고 지옥에 끌려갔던 박정자(김신록)와 정진수(박성철, 시즌1의 유아인) 의장이 부활하고 소도, 새진리회, 화살촉 세력이 새롭게 얽히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 정부도 물밑에서 움직인다.

연상호는 〈지옥〉 시즌2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두 인물이나 집단으로 화살촉과 민혜진(김현주)을 꼽았다. 양극단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민혜진은 자신이 믿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상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나이브한 인물이며, 이야기의 결말에 다다를 때 자신의 믿음을 일부 수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자기의 모습이 화살촉의 광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문소리가 연기

34) 오명언, 〈'지옥' 시즌2는 세계관 확장이 목표…들끓는 반응에 행복〉, 『연합뉴스』, 2024.10.29.,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25600005. (접속일: 2026.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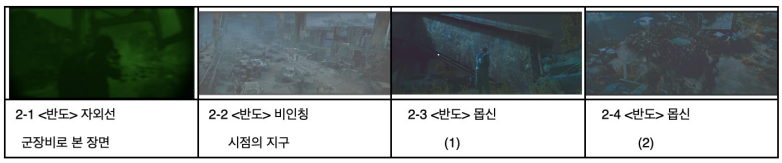
35) 〈지옥〉 시즌2 6화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가 실은 시연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시연당한 후 부활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작중 인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www.kci.go.kr

한 이수경(청와대 정무수석)은 '새 시대의 논리'에 입각해 생각하는 사람이라 설명한다.[36] 우리는 연상호가 말한 '새 시대'를 긍정적인 의미보다 '전례 없는'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옥〉 시즌2에서 앞선 시즌1보다 두드러진 것은 군중들의 이미지다. 송효정은 〈지옥〉 시즌1을 분석하면서 2010년대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던 인민들의 모습이 프롤레타리아 그로테스크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점에 주목했다.[37] 데모스(demos, 인민)의 이미지가 작품 속에서 아데미아(ademia, 인민의 부재)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상호 호러물의 장대한 스펙터클을 장식하는 군중신-몹신(mob scene)에서 군중들의 신체가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들은 실로 인상적이다. 몹신은 영화용어로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을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로는 군중이 폭력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장소 혹은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마릴린 맨슨의 노래 제목 〈mOBSCENE〉의 상상력을 참고하자면, 몹신(mob scene)에는 외설적(obscene) 현장성의 의미가 부가될 수 있다.



2-1 <반도> 자외선 군장비로 본 장면	2-2 <반도> 비인칭 시점의 지구	2-3 <반도> 몹신 (1)	2-4 <반도> 몹신 (2)

〈표2〉 영화 〈반도〉의 시점샷과 몹신

36) 연상호, 〈[인터뷰] 모든 것이 뒤바뀐 세상에서의 논리, 〈지옥〉 시즌2 연상호 감독 × 최규석 작가 대담〉, 『씨네21』, 2024.10.31.
37) 송효정, 앞의 글 참고.

www.kci.go.kr



3-1 <지옥> 시즌2 정죄의 불꽃	3-2 <지옥> 시즌2 새의도 선포 대성회	3-3 <방법: 재차의> 재차의들의 난입	3-4 <괴이> 군청앞 학살의 장

〈표3〉 〈지옥〉 시즌2 〈방법: 재차의〉, 〈괴이〉의 몹신

몹신에서 비생명-존재들은 레비아탄적 신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레비아탄적 신체의 전조는 〈반도〉에서 쇼핑몰 내부 좀비들에서 암시된다. 이들은 인간의 신호만 감지되면 몰려드는 비이성적인 존재들이다. 쇼핑몰 내부에는 좀비들이 가득한데, 오랜만에 인기척을 느낀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나와 폭력적 군중신을 선보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좀비의 창궐로 폐허가 된 한국은 싸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음과 위협만이 있는 불모의 땅(2-1)이지만 비인칭의 시점으로 보면 사람이 사라진 문명 위로 새로운 초록의 식물들이 자리 잡은 생명의 장소(2-2)다. 이곳에서 인간-좀비는 서로 뒤얽힌 신체들로 존재한다(2-3, 2-4). 좀비들은 다른 인간을 포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꿈틀댄다. 이렇게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초록이 풀들이 무성하다. 좀비는 뜻하지 않게 자기 포식(소멸)으로 인해 지구 행성의 새로운 생태계에 헌신하는 아이러니한 존재다.

〈지옥〉 시즌2에서 정죄의 불꽃 의식에 동참하려는 군중들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속죄를 욕망하며 파멸/구원의 기회에 몸을 던진다(3-1). 〈방법: 재차의〉에서 살아난 시체들은 떨어져 있어도 주술에 의해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응집되어 있지 않아도) 군체적 한몸을 이룬다(3-3). 여기서의 재차의들은 바이오 실험에 의해 죽은 시체들로 주술이 걸린 상태에서 질주한다. 〈괴이〉에서 괴불의 저주에 걸린 사람들은 내면의 지옥을 목도한 후 무차별적인 살육에 나선다(3-4). 〈괴이〉의 경우 괴불이 나타나 사람들의 내면에

www.kci.go.kr

있는 지옥을 펼친다는 점에서 내면의 지옥으로 고통받는 〈지옥〉 시즌2의 부활자들의 모습과 비견된다. 이러한 몹신 이미지는 신념, 바이러스 감염, 혹은 주술로 인해 휘둘리고 조종당하는 살아있는 시체들로 재현된다.

최근 연상호 세계관 작품에서 국가의 기능은 공동화되어 있다. 고립된 지방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국가의 개입은 극히 한정된 행정 조치나 경찰력을 대리하는 캐릭터(〈지옥〉 시즌2의 정무수석 이수경(문소리)이나, 〈기생수: 더 그레이〉의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타격 팀장 최준경(이정현) 등)로만 간접 등장한다. 발리바르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책임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국가 없는 국가'인 셈이다. 이 작품들에서 국가는 재현체계의 바깥에서 '통제'의 방식으로만 통치성을 드러낸다.

더불어 연상호 세계관의 작품들은 지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괴이〉, 〈방법: 재차의〉, 〈기생수: 더 그레이〉의 경우 가상의 지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작품은 마치 그 지방만이 세계의 전부인 듯 서사가 전개되며, 국가 기능은 전반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다(존재하지만 시각적 재현의 바깥에 있다).

〈괴이〉의 공간적 배경은 가상의 지방 '진양군'이다.[38] 괴불의 저주는 오컬트적 현상으로 한국 고전 『어우야담』에 등장하는 '저주하는 괴불' 소재를 차용한 것이다. 진양군에 검은 비, 귀면박(귀신 얼굴의 우박)이 내리는 등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감염(이라 오인한 채)의 위험을 감지한 후 진양군을 봉쇄한다. 정부는 미디어(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지방은 안개로 자욱하고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게 된다. 〈기생수: 더 그레이〉의 경우

38) 진양군은 〈부산행〉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곳으로서 생화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유성바이오'가 있던 곳이다. 〈괴이〉에는 〈부산행〉에 등장했던 물고기떼 폐사나 연기로 자욱한 공장 이미지가 등장한다. 표 4 참고.

www.kci.go.kr

‘남일군’이라는 가상의 행정구역이 등장한다. 작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세력가로 잠시 등장할 뿐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시화된 권력집단은 종종 맹신으로 치닫는 신념의 집단에서 나온다. 〈지옥〉 시리즈의 신흥 종교인 새진리회와 그 친위대로 만들어진 화살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기생수에 감염된 자들이 무리가 되어 집합하는 장소가 새진교회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뇌를 장악당한 피동적 존재들을 광신도 집단에 비유한 것이다. 기생수에 장악된 자의 집단은 인간의 종교 집회를 닮아있다, 신념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집회 장면에서는 파시즘적 결합(의장과 상징의 활용, 지도자 숭배, 폭력성과 통제 등)의 특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방의 곳곳에서는 내전이 벌어진다. 〈지옥〉 시즌2는 화살촉의 희망이던 아이가 실은 시연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가 부활했음을 암시하며 끝난다. 서사를 완결하지 않고 다른 내전의 가능성을 내장한 채 종결된 모호한 결말인 셈이다. 〈방법: 재차의〉는 제약회사가 불법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발생한 재해와 샤머니즘적 저주(방법)를 통해 살아난 재차의 군집을 보여준다. 여기서 갈등을 조정하고자 분투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탐정(사설탐정)과 민속학 교수 등 분자화된 개체들이다.

〈괴이〉의 경우 지방은 안개 자욱한 곳으로. 정부의 방역방침에 의해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게 된다. 이 상황은 마치 봉쇄된 1980년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국가는 진양의 사람들을 포기해버리고, 그 안에서 주민들은 저주에 포박된 채 상호 살육을 지속한다.

〈기생수: 더 그레이〉의 경우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인 ‘더 그레이’라는 조직이 등장하지만 이 조직의 팀장은 극중에서 원한에 추동된 사명감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배후에 있는 공권력의 강력함이

www.kci.go.kr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권력이 비가시화되어 있다. 국가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통제' 기능만을 수행하는 통치체로 등장한다. 그 와중에 국지적인 분쟁(내전)이 지속된다.



4-1 <괴이> 폐사된 물고기	4-2 <괴이> 검은 물웅덩이	4-3 <괴이> 안개 낀 진양군	4-4 <괴이> 엔딩의 공장신

〈표4〉 어두운 생태학의 이미지



5-1 <기생수: 더 그레이> 의 쓰레기가 된 행성 지구	5-2 <기생수: 더 그레이> 미디어에 유통되는 죽음의 언어들	5-3 <기생수: 더 그레이> 밭에 떨어진 기생수와의 공존	5-4 <기생수: 더 그레이> 식물원에서의 만남

〈표5〉 죽음과 생명의 이미지

5. '낯설게 낯선 자'에게 유령들림

연상호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시리즈물에는 몹신을 보이는 군중의 양상, 국가-행정력의 공동화·비가시화, 국지전-내전의 양상이 드러난다. 이들에 등장하는 개인, 군중, 무리에 대해 정치적이든 윤리적이든 어떤 방식의 범주화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근래 국내외 분쟁과 갈등 속에서 기존에 신뢰되던 보편적 가치들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적합한 개념을 발명해내지 못한 채, 우울한 이 문화적 조건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연

www.kci.go.kr

상호의 몹신에 등장하는 잿빛 멜랑콜리, 도저한 부정성, 파국에의 열망을 품은 군중은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내지 사회적 타자, 잉여 등으로 쉽게 범주화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시대가 만든 비저항적 비체로도 채 다 설명되지 않는다.

경제 논리와 불평등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미 모두 다 망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고, 이데올로그였다가 방관자고, 공존의 대상이었다가 가장 가혹한 적인 자들, 이들은 친구인가 적인가? 우리는 그들과 연대해야 하는가?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 시대의 악은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

언어화되지 못한 이 경험을 기후, 생태, 행성지구, 우주의 불안을 담은 '비인간적 무의식(non-human unconscious)'과 연관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티머시 모턴은 행성적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얽혀있는 찐득거리는 현실을 '어두운 생태학(dark ecology)'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학적 개체와 만나는 것을 '유령들림(haunted)'으로 표현한다[39].

초대하지 않았지만 이미 도래해버린 어두운 생태학의 편린들이 연상호 호러 세계관에 산포되어 있다. 이는 정교하게 의도되었다기보다 그의 연출적 무의식에 포착된 것이라 판단된다. 〈괴이〉에서는 생태학적 재난인 듯 검은 비가 내리고 귀면의 우박이 떨어져 검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물고기는 폐사하고 공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4-1, 4-2, 4-4)[40] 이 시리즈에서 주술적으로 설정된 오컬트적 소재 '괴불'은 저주라는 초자연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재앙에 대

39) 티머시 모턴, 『인류』, 김용규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08쪽.
40) 이 장면은 〈부산행〉에 등장하는 진양군의 우성바이오에서 유포한 생태적 재난의 이미지와 연관된다.

www.kci.go.kr

한 행성적 경고로, 인간이 만든 사악한 것이 인간을 사악하게 만든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공해와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에 기생수가 떨어지며 시작된다(5-1). 지구는 죽어가고 있고, 인간은 죽음의 언어들을 가상공간에 살포한다(5-2). 우연히도 초록 식물이 자라는 밭에 떨어진 기생수는 돌연변이체가 되어(하이디) 인간과 공생한다(5-3). 기생수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장소는 푸른 화초들이 자라는 식물원이다(5-4). 이 장면은 비인간(비인칭)의 공간에 푸른 생명들이 자라나던 〈반도〉의 장면을 연상시킨다.(2-2).

행성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생물, 미생물, 사물과 마찬가지의 객체일 뿐이다. 어두운 생태학은 이미 재난(기후 변화)이 발생했다는 어두운 우울과 기이함을 내장하고 있다. 행성 지구의 객체들은 서로 뗄 수 없는 끈적한 관계성 속에 '비인간적'으로 얽혀있다. 인간과 비인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결코 완전하게 알 수 없는 '낯설게 낯선 자'다.[41]

인간과 기생 생물이(〈기생수: 더 그레이〉), 몸과 바이러스/주술이(〈방법:재차의〉, 〈괴이〉), 생기와 사물이(〈지옥〉 시즌2) 얽혀든다.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 영화가 파시즘이 유포되던 시대 독일 대중들의 무의식을 반영한 심리적 영화였다면, 연상호 세계관의 작품들은 행성적 차원의 어두운 생태학의 관점에서 비인간적 무의식을 반영한 예견의 작품들일 수 있다.

6. 결론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연상호 세계관의 작품들을 큰 전체로 간주

41) 티모시 모턴, 『어두운 생태학』,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 갈무리, 2024, 304-308쪽.

www.kci.go.kr

하여 이에 대한 메타 서사를 써볼 수 있다. 초자연적 현상의 강림, 낯선 생명체의 신체 강탈, 생물학적 교란 등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들이 속출하자 국가가 통제력을 잃고 지방에서는 각종 이유로 나름의 내전이 지속된다. 그 와중에 인민이 인민과, 무리가 무리와, 어머니와 아들이, 아내와 남편이, 동료와 친구가 서로 싸우는 내전이 지속된다. 불안은 공포와 혐오에 휩싸인 군중신으로 드러난다.

이는 혁명의 시효가 만료된 사회, 정치나 사회의 진보에 대한 유토피아적 서사가 깨져버린 시대-아직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명명할지 모르지만-에 예상하지 못한 부조리와 퇴행과 악몽이 현실화되자 군중들이 불안에 잠식당하는 영구 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재난에 대처하는 합리적 통치성과 이를 중재하던 상호 호혜적 국제질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연상호의 호러 세계관에서 근대 국가(리바이어던)와 근대 국제질서(베스트팔렌 체제)가 무력화되고 군중들은 레비아탄적 신체로 새로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시작한다. 새로운 종교-신념의 전쟁 속에서 보편의 진리는 묵살되고 독선적 만인제사장 시대가 도래한다. 신(초자연)과 인간이 중보자(仲保者) 없이 직접 교통한다. 연상호는 "요즘 대중에겐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갈수록 그런 것 같다."[42]고 말한 바 있다. 보편의 희망, 보편의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묵시록적 포퓰리즘의 레비아탄 신체가 현현한다. 집단 지성을 공유하고 균사를 흩뿌리며 진화하는 좀비떼가 등장하는 〈군체〉(2026)가 선보인 포스트 휴먼적 상상력과 생물학적 재난의 역습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42) 연상호, 〈[인터뷰] '지옥' 연상호 작가, 「이제 대중에겐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씨네21』, 2023.3.13.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연상호, 〈반도〉(2020)

_____, 〈지옥〉 시즌2(2024)

_____, 〈기생수: 더 그레이〉(2024)

김용환, 〈방법: 재차의〉(2021)

장건재, 〈괴이〉(2022)

2. 논문과 단행본

김일림, 「'아름다운 청년'은 어떻게 '좀비'가 되었나? -한국의 대중문화로 보는 근대적 주체의 행방-」, 『인문콘텐츠』 제4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7, 284-297쪽.

김태연, 「'정치신학'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신학" 재고」, 『신학사상』 제207호,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4, 256쪽.

박문정, 「아감벤의 유럽: '행성적 내전'과 '거주(abitare)'의 가능성」, 『EU연구』 제7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6, 204쪽.

박미영, 「디지털 시대의 좀비와 비체적 포스트휴머니즘」, 『현대영화연구』 제44호, 현대영화연구소, 2021, 79-95쪽.

복도훈, 「빚짐의 도착적인 유대, 또는 속죄의 판타지 (없)는 좀비민국의 아포칼립스 -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16)과 〈서울역〉(2016)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8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13쪽.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185-223쪽.

송효정, 「프롤레타리아 그로테스크 - 동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인민 대중 형상」, 『우리말글』 제103호, 우리말글학회, 2024, 562-566쪽.

한영현, 「절멸의 공포와 탄생의 이중주: 재난 영화 속 여성 재현의 사회 문화적 함의」, 『여성문화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372쪽.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분배냐 인정이냐?』, 김원식·문성훈 옮김, 사월의책, 2014.

낸시 프레이저 외, 캐빈 올슨 엮음,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문현아 외 옮김, 그린비,

www.kci.go.kr

2016, 24-68쪽.
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1 - 위기』, 원석영 옮김, 푸른역사, 2019.
에티엔 발리바르·이매뉴엘 월러스틴, 『인종, 국민, 계급』, 김상운 옮김, 두번째테제, 2022.
웬디 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 배충효·방진이 옮김, 내인생의책, 2017.
자크 랑시에르, 『불화』, 진태원 옮김, 도서출판 길, 237-250쪽.
조르조 아감벤, 『저항할 권리』, 박문정 옮김, 효형출판, 2022.
_____, 『내전』,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7.
_____, 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홍철기 외 옮김, 난장, 2010.
주디스 버틀러,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김응산 옮김, 창비, 2023.
지그문트 바우만·카를로 보르도니, 『위기의 국가』, 안규남 옮김, 도서출판 동녘, 2014.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칼리가리에서 히틀러로』, 장희권 옮김, 새물결, 2022.
티머시 모턴, 『인류』,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김용규 옮김, 2021, 108쪽.
_____, 『어두운 생태학』,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 갈무리, 2024, 304-308쪽.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81-86쪽.
Rick Worland, *The Horror Film: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2007.

3. 기타자료

Wendy Brown, "Apocalyptic Populism," *Eurozine* 30 Aug. 2017., https://www.eurozine.com/apocalyptic-populism/. (접속일: 2026.8.30.)
연상호, 〈[인터뷰] "모든 것이 뒤바뀐 세상에서의 논리", 〈지옥〉 시즌2 연상호 감독×최규석 작가 대담〉, 『씨네21』, 2024.10.31.
연상호, 〈[인터뷰] "이제 대중에겐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씨네21」, 2023.3.13.
오명언, 〈'지옥' 시즌2는 세계관 확장이 목표…들끓는 반응에 행복〉, 『연합뉴스」, 2024.10.29.,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25600005. (접속일: 2026.8.30.)
최영주, 〈연상호 감독, 디카프리오와 손잡고 첫 미 영화 '35번가' 제작〉, 『노컷뉴스』, 2024.06.07., https://www.nocutnews.co.kr/news/6156954. (접속일: 2026.08.30.)

www.kci.go.kr

Abstract

The Leviathanic Body and the Anxiety of Permanent Stasis - On Yeon Sangho's Horror Universe

Song, Hyo-Joung(Daeg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Yeon Sang-ho's works as director and/or screenwriter in the post-pandemic period—centering on “Hellbound” Season 2 and “Parasyte: The Grey”, and considered alongside “The Cursed” (Bangbeob: Jaechaui), “Goeie”, and <Peninsula>—in order to elucidate how the so-called "Yeon Sangho horror universe" prefiguratively gives form to the formless anxieties of the contemporary public. To this end, the study draws on Giorgio Agamben's concept of "planetary civil war (stasis)" and recent scholarship on the Hobbesian allegory of the Leviathan. Through this framework, it reads the mob scenes in Yeon's works—in which crowds, coalescing into communities of belief in the vacated and invisible space left by the hollowed-out state, turn to mutual slaughter—as constituting a "Leviathanic body," a vast artificial body operating independently of the individuals who compose it. The study further draws on Wendy Brown's concept of "apocalyptic populism" and Timothy Morton's concept of "dark ecology" to examine how these bodies become entangled with a non-human unconscious rooted in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Yeon Sang-ho's horror and occult narratives move beyond existing neoliberal class narratives to serve as symptomatic texts that prefiguratively bear witness to a state of permanent civil war—an era in which utopian visions of revolution and progress have dissolved and universality itself has been evacuated.

(Keywords: Yeon Sang-ho's Horror Universe, Apocalyptic Populism, Mob

www.kci.go.kr

Scene(m-Obscene), Leviathanic Body, Planetary Civil War(Stasis), Dark Ecology)

논문투고일 : 2026년 9월 1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21일

www.kci.go.kr